

제 1 교시

언 어 이 해

성명

수험 번호

작수형

-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예를 (나)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가) 유의 관계를 가진 두 단어는 동일한 문맥에서 구절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상호 대체될 수 있다.

(나) ㉠ 다른 사람을 비방(誹謗)함. [→ 폄훼(貶毀)함]

㉡ 낚은 관습을 일소(一掃)함. [→ 혁파(革罷)함]

㉢ 중죄인을 유배(流配)함. [→ 유폐(幽閉)함]

㉣ 이웃 나라를 정복(征服)함. [→ 복속(服屬)함]

㉤ 상대의 경고를 일축(一蹴)함. [→ 묵살(默殺)함]

※ 밑줄 친 단어를 화살표 오른쪽 단어로 대체함.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 <보기>의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소들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우선 축사가 [㉠ 건실, ㉡ 견실]해야 한다.

○ 목재에 송진을 문질러 빗물의 [㉢ 침윤, ㉣ 침잠]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 설비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 감식, ㉥ 감정]한 담보물의 가격은 최대한 인정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우리의 일상적 삶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뿐 아니라 위대함과 나약함까지도 동시에 드러내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
- ② 승화란, 정신을 가다듬고 신체를 단련하거나 종교나 학문의 길에 열중하는 과정에서 충동이나 욕구가 정신적 가치로 치환되어 충족되기도 한다.
- ③ 검사 장비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했던 탓에 그 환자와 가족은 외국 병원에서 진단과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 ④ 우리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바보스러운 일이고 양심이라는 멍에를 지고 산다는 것이 일종의 자학 행위일지라도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 ⑤ 물이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므로 현대인들에게는 메마른 목을 적셔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필수적이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 만약 기업이 채무 상황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 GDP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위협이 채무 상환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이후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GDP가 감소할 때 해외 차입이 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황 시 총수요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신용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위협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도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증 자료도 이튼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대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이튼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설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가설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황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은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와 국내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협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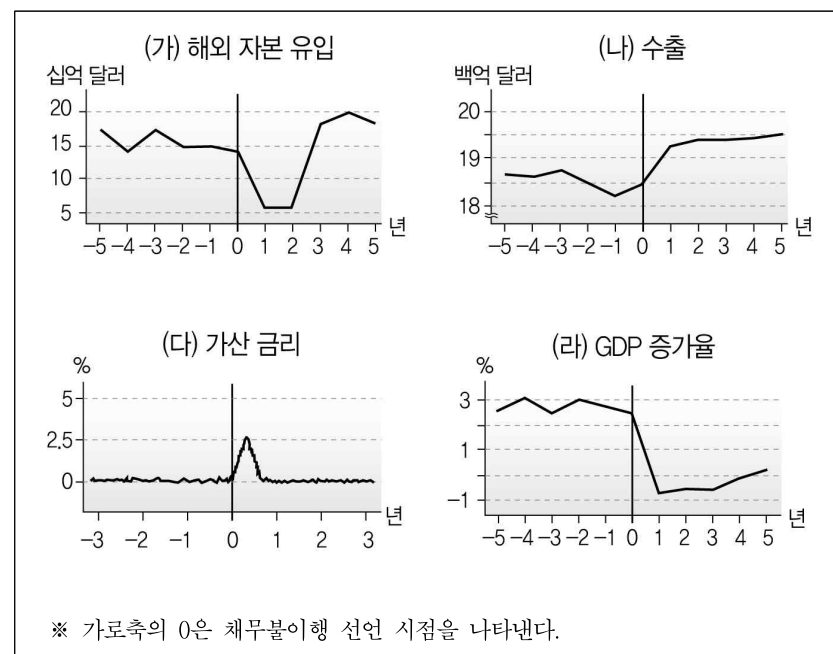
다음으로 신용시장에서의 평판 효과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7~2004년의 자료에 기초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이후 1년 동안은 가산 금리가 4% 포인트 상승했지만 2차년도에는 2.5% 포인트로 낮아졌으며, 3차년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가산 금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신용시장 평판 하락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GDP 증가율을 약 0.6% 포인트, 은행 위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2.2% 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 GDP 증가율 하락도 영구적인 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GDP 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4. 위 글에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있다.
- ② 모든 가설은 국가 채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③ 고전적 가설은 신용시장에서 채무국을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④ 가설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⑤ 가설 중 일부는 채무국의 신용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5.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어느 국가의 경제 변수들의 추이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위 글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바르게 해석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는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ㄴ. (나)는 첫째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다)는 둘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라)는 셋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철학적 근대는 감성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자아를 정초한 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주체뿐 아니라 객체의 세계까지도 선험적 이성의 현상태로 규정한 독일 관념론에 이르러 완결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시작과 끝만 보고 이 시대 전체를 이성지상주의의 단선적 질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유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근대**는 어떤 곡절을 거쳤기에 그러한 귀결에 이르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사상 운동이다. 그중 1913년에 발견된 후, 후일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강령」(이하 「강령」)으로 명명된 18세기 말의 작자 미확정 텍스트는 단연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이성지상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것이 독일 관념론인데, 그 사조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이 글에서는 오히려 사뭇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 **실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세계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라고 외치는 실러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건줄 수 있는 충만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실러의 이러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공포 정치로 극단화된 프랑스 혁명과 인간의 소외가 만연한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으며,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사상적 모태인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보기에, 계몽주의는 추상적 지성의 계몽에만 경도되어 인간의 소중한 정신 능력들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혁명의 과격화는 필연적이다.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심성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륜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희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정치 미학적 노선을 발전시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고양을 핵심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적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적 절대주의로까지 극단화된 노선에서 출발한 독일 관념론은 이후 사상가들이 다다른 ㉢ **그 최종판**에서는 근대 초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과거의 신화적 세계와 당대의 국가적 삶의 양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이제는 상실이 아니라 획득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고대에서는 오히려 절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 다수의 억압이 자행되었고, 시민 사회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다수의, 나아가 만인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근거에는 세계의 전체 과정이 자유로운 이성의 자기실현 과정에 속한다는 형이상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역사란 태초의 근원적 원리인 선험적 이성이 현상계에서 실현되는 거대한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하는 신화적 세계가 지양되고 이성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와 국가 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와 같이 미적 차원에 속하는 것은 정신사의 미발견된 초기에만 인간 심성을 도야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의 전진을 통해 도달한 시대에 다시 미적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계몽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6. 위 글에 따라 **철학적 근대**의 전개 과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 ①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하자, 양자가 각각 부분적 타당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통해 다수 이론의 공존을 용인하는 합리적 사상이 강화되었다.
- ② 이성지상주의에 대해 그 반대 노선이 도전했지만, 도전의 근거로 제시된 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더 강화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하였다.
- ③ 이성지상주의의 부적절성이 반대 노선에 의해 입증되자, 애초의 전제에 내재한 오류의 인식을 통해 사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 ④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하자, 두 입장 모두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양자의 매개를 추구하는 중립적 이론이 형성되었다.
- ⑤ 이성지상주의가 반대 노선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물리치고 처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확고한 노선이 유지되었다.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실 정치를 위한 미적 교육을, ㉡은 무정부주의적 신학을 모색한다.
- ② ㉠은 독일 관념론을 위한, ㉡은 계몽주의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다.
- ③ ㉠은 계몽주의의 지속적 완성을, ㉡은 계몽주의의 근본적 청산을 지향한다.
- ④ ㉠과 ㉡은 모두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노선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
- ⑤ ㉠과 ㉡은 모두 미적 절대주의를 통해 참된 인륜적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한다.

8. ㉠의 입장에서 ‘새로운 신화학’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정치에 등을 돌리고 미적 차원을 지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대 사회가 초래한 만인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 ② 역사가 진행될수록 위축되어 온 인간의 자유를 이성에 의거하여 복원하려는 것은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부질없는 노력이다.
- ③ 삶의 근대적 양상을 정치적 차원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그 양상이 이성의 전횡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 ④ 신화학을 통해 변용된 계몽의 모델을 과거에서 찾는 것은 감성주의적 이상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
- ⑤ 당대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극복된 과거를 모범으로 삼는 것은 퇴행적 발상이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반 미국의 법률가들은 법철학이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학문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법철학자들은 대개 권리나 의무의 본질에 대한 막연한 이론을 늘어놓기만 할 뿐,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호펠드의 이론은 당대의 통념을 깨뜨린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다의적인 법적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법률가들이 잘못된 논증을 하게 되고 급기야 법적 판단을 그르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무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가들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법률가들이 권리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권리자와 그 상대방의 지위를 나타내는 네 쌍의 근본 개념을 확정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은 이들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둘째, 자유권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셋째,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자의 처분이 있으면 곧 지위 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방이 현재 점하고 있는 지위, 곧 피형성적 지위인 것이다. 넷째, 면제권은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형성권이 없다.

호펠드는 이러한 근본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와 관계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리 문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완성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구권이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비해, 형성권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통제하는 결과 그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권이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주장이라면 자유권은 그러한 주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형성권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면제권은 그러한 처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 내에서 볼 때 만일 누군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일 누군가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권자의 상대방은 동시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면제권자의 상대방 또한 동시에 형성권을 가질 수 없다.

호펠드는 이러한 [권리의 문법]에 근거하여 ‘권 대(對) 리덤’ 사건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법철학 이론도 법률 실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육류 생산업자인 원고에게는 피고가 속해 있는 도축업자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객들에게 원고와 거래하지 말 것을 중용함으로써 원고의 자유에 간섭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호펠드의 분석에 따르면, 판사는 원고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곧바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정작 이 자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호펠드의 희망은 이렇듯 개념의 혼동과 논증의 오류가 정의와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법률가들의 성찰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데 자신의 연구가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훗날 판례 속의 법적 개념과 논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미국 법학의 큰 흐름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위 글에 나타난 호펠드 법철학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권리 문장에 사용되는 권리 개념의 다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② 권리에 대한 법률가들의 통념적 구별이 가질 수 있는 개념적 오류를 비판함.
- ③ 권리 문장의 분석을 통하여 권리들 간에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근거를 해명함.
- ④ 권리 문장을 사용한 법률가들의 추론에 논리의 비약이 내재해 있음을 규명함.
- ⑤ 권리 개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의 일반 이론을 모색함.

10.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에서 볼 때, [권리의 문법]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②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동시에 그는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③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일정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④ 누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면 동시에 그는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⑤ 누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11. 호펠드의 근본 개념들이 <보기>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경기 도중 득점 기회를 잡은 선수 A를 막으려고 상대 팀 선수 B가 정당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A는 경기장이 미끄러운 탓에 몸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심판 C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B를 퇴장시켰다. 심판은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B의 팀은 C의 판정에 따라 한 명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했다. 감독 D는 수비 약화를 우려하여, 뛰고 있던 공격수를 빼고 몸을 풀고 대기 중인 선수 E를 투입했다.

- ① A는 B에게 몸싸움을 걸지 말라고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 ② A는 C에게 그의 판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 ③ B는 C의 판정만으로 퇴장당하게 되는 피형성적 지위에 있지 않다.
- ④ C는 D에 의해 판정의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을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 ⑤ D는 E가 시합에 나가지 않을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많은 나라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모델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 등이 있다.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즉 기업이나 산업의 전·후방

부가 가치 네트워크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 다음으로 전문 기능, 기술, 정보 등을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규제 기관의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례인,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경우, 포도 재배는 이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상·하원의 특별 위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위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지역혁신체계는 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하부구조는 혁신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혁신 성과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 ㉡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지의 특징은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 경쟁 기업 간 활성화된 공동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국가나 지역, 개별 집단 등 공동체의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정, 협력,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1980년대 이후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의 달성이 사회자본의 내용과 질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사례가 영세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 일본 오타구 나카마 공동체인데, 나카마 공동체란 동업의 친구나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격의 집단을 뜻한다. 종업원 10인 이하인 이 지역의 영세 기업들은 신뢰·협력·경쟁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물망처럼 엮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전문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 개념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 네트워크는 구성 요소들 간 연계 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부가가치나 혁신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 이때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즉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지닌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이들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는 증가하며 교류 빈도 또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는 강한 유대감 속에서 성장하면서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한 집합적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12.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클러스터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나 산업의 보완적인 상호 연관성을 높이는 데 있다.
- ② 지역혁신체계는 기술과 지식의 창출과 응용을 위한 혁신 지향적 연결망이다.
- ③ 사회자본에서는 공동체 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중시된다.
- ④ 지역 발전에 있어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는 촉매 역할을,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 ⑤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은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13. 위 글에 따라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전부터 여름철 관광지로 유명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산업이나 지식 자산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낙후 도시였다. 1960년 ○○대학 부총장은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산·학·연 혁신 주체들이 모여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학 도시를 구상했다. 이 구상은 1960년대 중반에 이 도시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중앙 정부의 지방 분권법 제정도 이 도시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는 교통·통신망을 확충하고 과학 기술 두뇌가 집적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방 정부는 협력적인 산·학·연 관계의 조성을 촉진시켰고, 민간에서는 민·관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들을 유치한 후 연관 기업이 입지하도록 유도하였다.

- ① 1960년의 최초 구상은 물리적 하부구조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 ② 1960년대 이전의 사회자본이 기술 혁신을 촉진시켰다.
- ③ 1960년대 이전에 클러스터 기반이 형성된 도시에 정부의 발전 전략이 적용되었다.
- ④ 1980년대 이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작용하였다.
- 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을 조성하였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하나의 클러스터가 기능화된 여러 클러스터로 구성된 복합 구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은 전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리적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지방 정부의 활동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 ④ ㉣에서 경쟁 기업들 간에도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혁신을 위해 상·하부구조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개별 기업이 지닌 영세성의 한계를 기업체 내부의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은 크게 변모했다. 특히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두 예는 과학의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상대 운동에 관한 유효한 공식으로 승인되었던 속도의 덧셈 법칙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칙은 시속 15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시속 150km로 달리는 옆 선로의 기차를 볼 때 그것이 시속 300km로 도망가는 듯 보인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물리학이 새 이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기차가 만일 초속 15만km로 달린다면 새 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에 뚜렷한 차이가 나겠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계산의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하는 반면,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양자역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1910년대에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전물리학으로

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반면,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원자 안의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데, 마치 그렇게 풀려나면서 양자역학의 영토로부터 고전물리학의 영토로 건너오는 꼴이었다.

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 고전물리학 고유의 영역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발달한 혼돈이론의 경우는 두 이론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 준다. 혼돈이론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살피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혼돈이론이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절묘하게 서로 연결된다. 원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을 가정하면 실통하게도 양자역학의 식은 고전물리학이 내놓는 식과 일치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연결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

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리학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해진 사실은 ㉠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지고 있다.

15.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음속과 비슷한 속력의 운동은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 중 어느 것으로 설명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
- ②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속도의 덧셈 법칙은 고전물리학에서와 동일한 식으로 표현된다.
- ③ 고전물리학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도 유지된다.
- ④ 원자에 속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고전물리학이 적용된다.
- ⑤ 혼돈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적용된다.

16. ㉠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위 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때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옛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
- ② 물리학의 진보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두 이론의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서 두 이론의 식이 일치한다면 두 이론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 ④ 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다.
- ⑤ 옛 이론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새 이론이 해결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7. 위 글의 관점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갈릴레오 낙하 법칙 $s = \frac{1}{2}gt^2$ 은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s)와 낙하 시간(t)의 관계를 나타낸다. 뉴턴 역학의 중력 법칙과 운동 방정식을 쓰면 갈릴레오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뉴턴 역학의 관점을 엄격히 적용하면 갈릴레오의 법칙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 물체가 낙하함에 따라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변하고 그에 따라 둘 사이의 중력도 변하기 때문에, 낙하 법칙에서 상수로 가정된 중력 가속도 g 는 사실 상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낙하 운동은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아주 작은 구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 ①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물리학의 식들을 포섭하는 것처럼 뉴턴 역학은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통해 갈릴레오의 법칙을 포함한다.
- ②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영토가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갈릴레오의 법칙이 유효한 범위는 뉴턴 역학의 영토와 잇닿아 있다.
- ③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상수가 아닌 g 를 상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뉴턴 역학과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형성할 수 없다.
- ④ 혼돈이론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이전의 역학과 뉴턴 역학을 연결하는 이음매 역할을 한다.
- ⑤ 갈릴레오의 법칙과 뉴턴 역학은 서로 상충하는 이론적 전제 위에 구축되었지만, 전자로 후자를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론의 상보적 부분들이 된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연 선생님이셨군요.” 공수반은 반갑게 말하면서 그를 방으로 들게 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전히 바쁘시지요?”

“그렇소. 언제나 그렇지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요?”

“북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려고…….” 목자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공수반은 불쾌했다.

“당신에게 열 냇을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말에 그는 정말로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나는 의로운지라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 참 훌륭하군요!” 목자는 아주 감동해서 벌떡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나서 다시 매우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당신이 운제(雲梯)를 만들어 송나라를 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초나라에는 남아도는 것이 땅이고 모자란 것이 사람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죽이고 남아도는 땅을 싸워서 빼앗는 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송나라에 죄가 없는데도 치려고 하는 것은 어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여 얻는 것이 없으면 이를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롭기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하고 공수반이 생각하더니, 이어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왕께 고했습니다.” 공수반은 한탄하면서 말했다.

“그러면 제가 왕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중략)

목자는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한 후, 원래는 즉시 노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공수반이 그에게 빌려 준 옷을 돌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 그의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때는 이미 오후여서 주인과 손님은 다 같이 배고픔을 느꼈다. 주인은 당연히 그를 만류하여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였다. 또 이미 저녁 때가 다 되어 그에게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권했다.

“아무래도 오늘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내 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초왕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자는 말했다.

“당신은 역시 의를 행할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몸과 마음을 괴롭혀 가며 위급한 일을 구제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대인들이 취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군왕입니다. 동향 친구여!” 공수반이 말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비단이나 삼베, 쌀, 조 등은 모두 천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대인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요, 하물며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을까요?”

목자가 말했다.

“그것도 옳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송나라를 취하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 설사 송나라를 그냥 준다고 해도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나 또한 싫소…….” 공수반이 유쾌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송나라를 드리겠소. 당신이 언제나 의만 행하신다면 나는 또 당신께 천하를 드리겠소.” 목자도 유쾌하게 말했다.

주객이 담소하는 사이에 음식이 준비되었다. 생선과 고기, 술도 있었다. 목자는 술도 마시지 않고 생선도 먹지 않으며 고기만 약간 먹었다. 공수반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수저를 많이 놀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미안해서 그에게 고추를 권하는 수밖에 없었다.

“드세요, 드세요!” 그는 양념장과 커다란 전병을 가리키며 간절하게 말했다.

“드셔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대파가 우리 고향 것처럼 굵고 좋지는 못하지만…….”

공수반은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자 더욱 유쾌해졌다.

“내게 배 싸움 하는 데 쓰는 구거(鉤拒)라는 무기가 있는데, 당신의 의(義)에도 구거가 있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내 의의 구거는 당신의 배 싸움의 구거보다 더 훌륭합니다. 나는 사랑으로써 구(鉤)를 삼고, 공손한 것으로써 거(拒)를 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써 구를 삼지 않으면 서로 친해질 수 없으며, 공손한 것으로써 거를 삼지 않으면 교활해집니다. 서로 친하지 않고 교활해지면 곧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게 되면 서로에게 똑같이 이익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구로써 다른 사람을 낚아챌다면 다른 사람도 구로써 당신을 낚아챌 것이며, 당신이 거로써 다른 사람을 막는다면 다른 사람도 거로써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서로가 낚아채고 서로가 막는다면, 서로에게 똑같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의 구거는 당신의 배 싸움의 구거보다 훌륭합니다.” 목자는 결연히 대답했다.

“그러나 동향 친구여, 당신이 의를 행하면, 정말로 나의 밥그릇을 거의 부숴 버리는 것이 됩니다!”

공수반은 말문이 막히자 말을 바꾸었다. 아마도 약간의 술기운이 있었기 때문이라. 사실 그는 술을 마실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의 모든 밥그릇을 부숴 버리는 것보단 낫겠지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장난감이나 만드는 수밖에 없겠군요. 동향 친구여,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에게 장난감을 보여 드리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뒷방 쪽으로 가더니 상자를 뒤지는 듯했다. 잠시 후 다시 나왔는데, 손에는 나무토막과 대나무로 만든 까치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목자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날리기만 하면 사흘은 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매우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목수가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목수는 세 치짜리 나무토막을 깎아서 오십 석의 무게를 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바로 훌륭하고 좋은 것이

며, 사람에게 이롭지 못한 것은 바로 졸렬하고 나쁜 것입니다.”

“아, 잊고 있었습니다.” 공수반은 또 말문이 막혔다. 이번에는 비로소 술이 깨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주장인 것을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변함없이 의를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의 눈을 보며 간절히 말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물건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천하까지도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폐를 끼쳤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목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보따리를 집어 들고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공수반은 그가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가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를 대문까지 전송하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잠시 생각하고는 곧 문제의 모형과 나무 까치를 모두 뒷방의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목자는 돌아가는 길은 천천히 걸었다. 첫째는 힘이 달렸고, 둘째는 다리가 아팠으며, 셋째는 식량이 이미 다 떨어져서 배고픔을 면하기 어려웠고, 넷째는 일이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올 때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올 때보다 더욱 운이 나빴다. 송나라의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두 번이나 검문을 당했고, 도성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또 의연금을 모집하는 구국대를 만나 남은 보따리를 빼앗겨 버렸다. 남쪽 관문 밖에 이르러서는 또 큰비를 만나 성문 아래에서 비를 피하려다가 창을 든 두 명의 순찰병에게 쫓겨나서 온몸이 흠뻑 젖었다. 이때부터 코가 열흘 이상이나 막혔다.

- 루쉰, 「비공(非攻)」 -

18. ‘목자’와 ‘공수반’의 대화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목자’는 ‘공수반’에게 초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쟁의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 ② ‘목자’는 ‘공수반’에게 개인의 이익이 나라의 이익에 부합될 때 진정한 충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목자’는 ‘공수반’이 개인적인 청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의롭다고 칭찬함으로써 설득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 ④ ‘목자’는 ‘공수반’에게 관리로서의 위민 의식을 지녀야 하며 동향 친구로서의 우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 ⑤ ‘목자’는 ‘공수반’이 송나라 백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그가 송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양보하려 하고 있다.

19. ‘공수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자’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 ② 나라를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물건의 제작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 ③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도 전쟁에서의 살상을 심각한 문제로 고려하지 않았다.
- ④ 이상적 평등주의보다는 천한 백성과 대인의 일을 구분하는 신분 의식을 지니고 있다.
- ⑤ ‘목자’를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면서도 ‘목자’의 체류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경계하였다.

20. <보기>는 루쉰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목자’의 주장을 통해 루쉰이 드러내고자 한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ㄱ. 지식과 절대 권력은 충돌하기 마련이고 병립할 수 없다. 절대 권력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상을 불허한다. 허용하면 능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 ㄴ. 도덕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따라야 하고 누구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이로워야 존재 가치가 있다.
 - ㄷ.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갈 길이 없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직 갈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를 꿈에서 깨우지 않는 것이다.
 - ㄹ. 앞길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어이 가는 것이 바로 절망에 대한 반항이다. 절망하지만 반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희망으로 인해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용감하고 비장하다.
 - ㅁ. 구사회, 구세력과의 투쟁은 반드시 단호해야 하고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구사회의 뿌리는 원래 아주 튼튼해서 새로운 운동은 그보다 훨씬 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뒤흔들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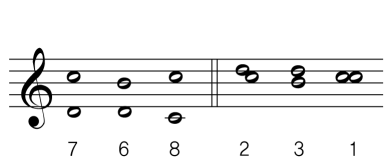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 하나 하나는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음정과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기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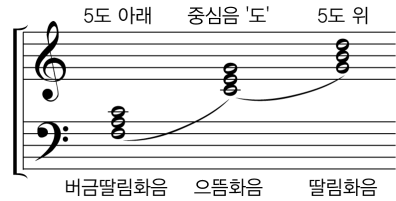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나)



한편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로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을 더한 <도-미♭-솔>은 ‘도 단3화음’이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완전음정 <도-솔>은 완전음정 <도-도>보다 덜 협화적이다.
- ② 르네상스 시대보다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 ③ 2도-3도-1도의 진행은 불협화음정-불완전음정-완전음정의 단계적 진행이다.
- ④ 장3화음과 단3화음은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의 성질에 따라 구별된다.
- ⑤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만으로는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없다.

22.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음의 재료가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
- ② 대위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선율들의 개별적인 독립성이 쇠퇴하였다.
- ③ 수직적인 음향을 강조하던 것이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④ 화성적 맥락으로 전환되면서 3도 관계의 화음들이 근본적인 화성 진행을 만들었다.
- ⑤ “화성은 선율의 결과이다.”라는 사고가 발달하면서 선율과 화성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23. <조건>에 따라 <보기>의 곡을 작곡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 건>

- 선율은 ‘도’를 으뜸음으로 한다.
- 한 마디에는 하나의 화음을 사용한다.

<보 기>



- ① ㉠의 화음에는 ‘미’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에는 버금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③ ㉢에는 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④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여 으뜸화음으로 끝난다.
- ⑤ 각 마디의 첫 음은 그 마디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3공화국(1875~1940)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동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세력화한 사건은 프랑스 정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 강력한 노동조합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노동자 정당은 의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려는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의제를 핵심으로 한 체제를 안정화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의 원칙 및 국가의 역할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기왕의 의회주의적 대의제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투표함 앞에서 모두가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이 아닌,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뿐 아니라 직업 집단이나 조합 등까지도 대표의 단위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한 개인들을 대표한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대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절정은 국가 경제 위원회(1916)였다. 국가 경제 위원회는 37개 직업 집단으로 구분된 대표 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동의 충실한 대표가 되었다. 국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일반 이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일반 이익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한편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과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국민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실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제도의 도입(1914)이었다. ‘실업’과 ‘실업자’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이 아닌, 사회적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노동자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회적 연대의 결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통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였다.

노동자 정당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대의제 개념의 변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 권리의 확장이라는 두 요소가 확장된 대의제를 통하여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민주주의의 원환(圓環)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원환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던 노동자 정당은 체제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교육자,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자로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거대 권력이 되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등장하였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그 거대 권력 속에 포섭되어 권력기관화되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복지 국가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부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기본 대책이 되었다.
- ②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 ③ 행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공적 기능의 확대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다.
- ④ 노동 위원회의 설치에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⑤ 행정부 내의 위원회들은 거의 모든 공적 영역을 포괄하였다.

25. 제3공화국에서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강화
- ②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 확대
- ③ 의회주의를 통한 특수 이익 대표 체계의 강화
- ④ 사회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⑤ 노동자 정당의 성장과 체제 내 포섭

26.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 내 위원회 확충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②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 ③ 정책 감시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의 다양화
- ④ 효율적인 여론 수렴 방식을 통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 ⑤ 특수 이익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국가 자율성의 확보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종 24년 9월 예조 판서 성현이 글로 아뢰기를,
“근일의 전지(傳旨)에, ‘관상감·사역원·전의감·혜민서는 본래 사족(士族)이 아니니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 넣지 말고 내의원만 넣어라.’ 하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약, 통역 등 일체의 잡학(雜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잡학을 문반의 직임으로 삼고 잡과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종께서는 문교(文教)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학에도 뜻을 두셨기 때문에 당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혹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A] 장차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한미한 무리로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다만 삼사(三司)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음덕이 자손에게 끼쳐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밭과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어서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학의 부류라고 논하여 정한다면 비록 참서관이라 하더라도 혹 논핵을 당할 경우 법관이 바로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3품에 오른 자도 음덕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다 흠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기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내의원과는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 그대로 두소서.

신이 분수에 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예관(禮官)으로 있으니, 맡은 바 문교와 잡학의 일에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권장할 만한 방도를 다음에 조목으로 진술하겠습니다.

1. 잡학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取才)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맡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1.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아니하고, 『노걸대』, 『박통사』 등의 책은 다만 외우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금후는 사서(四書)와 경서와 역사서는 한어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註疏)의 깊은 뜻을 묻고, 『노걸대』 등의 책은 외우게 한 뒤에 반복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의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정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금후로는 『노걸대』, 『박통사』를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취재

할 때에는 음을 묻는 것과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 『역어지남(譯語指南)』은 다만 물건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그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날마다 쓰는 보통 말도 또한 다 분류해서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어와 여진어도 한어 처럼 ‘지남(指南)’을 만들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상감 등의 관원을 문관과 무관의 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전의감과 혜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역원은 한어를 전하고, 율학(律學)과 산학(算學) 또한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중히 여겨 문반과 무반에 넣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내의원과 내시부 등만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이 잡학인이 통분해 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허중은 의논하기를,

“잡학인이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일 잡학직이라고 논하면 누가 즐겨 입속하여 그 직무를 힘써 익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철견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유 없이 잡학직으로 강등하여 옛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편하지 않을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2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역원의 현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를 위해 중국어·일본어·여진어 역관을 양성하였다.
- ② 역관 선발 과정에서 실무 능력이 간과되고 있었다.
- ③ 회화 능력이 뛰어난 역관이 부족하였다.
- ④ 역관 선발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⑤ 역관에게는 역사 지식도 중시되었다.

28. ㉠과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하들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

- ① 조종의 법의 권위
- ② 잡학 기관 간의 형평
- ③ 전문적 잡학직의 중요성
- ④ 지속적 인재 충원의 필요성
- ⑤ 잡과 과거 제도 확대의 당위성

29. 위 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이를 나누어 사민(四民)을 삼으셨으니, 사·농·공·상이 각각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선비는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고, 농부는 농사에 힘쓰며, 공인은 공예를 맡고, 상인은 물화를 유통시키는 것이니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관과 의관 등의 잡학인은 나라에 없을 수 없지만, 직임은 각기 분수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같이 거처하게 하고, 귀천을 섞이게 한 연후에야 권장이 되겠습니까? 벼슬과 상은 임금이 영웅을 다루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聖王)은 재덕(才德)이 탁월하거나, 혹은 공로가 중대하고, 혹은 다스린 성과가 제일인 자를 발탁한 일은 있어도, 환관과 역관, 의관을 중용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즉시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잡학인이 청류(清流)에 섞이지 않게 하소서.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잡학인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잡학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 ④ [A]는 <보기>와 달리, 잡학인의 현실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보기>는 [A]와 달리, 직분에 따른 신분제의 불가변성을 주장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87년 프랑스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포도 농사를 망친 곤충 바구미 떼를 인근 교회 법원에 고소했다. ㉠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 바구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구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주민들은 바구미의 권리를 인정하되 대체 서식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바구미와 체결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물이 교회 권력 혹은 국왕이나 영주 등의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 세속 재판에 회부된 동물 피고는 주로 사람을 죽인 가축들이었다. 돼지가 가장 흔했고, 소, 말, 개도 법정에 섰다. 교회 재판에서는 인간

에게 해를 끼친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피고가 되었다. 재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송 절차를 엄수하였다. 유죄가 증명되면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선고했다.

동물 재판 관행은 13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6세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법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속과 교회에서 법학이 발전하는 등, 근대법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자는 이 물음의 답을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과 동물을 의인화하는 민중 문화에서 찾기도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속의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판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의 재판 제도는 사실상 개인들의 자력 구제를 재판의 형식에 집어넣은 수준에 불과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의 구별도 모호했고, 공적인 형벌 제도도 없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합리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동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동물 재판을 옹호한 엘리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에 나오는 뱀에 대한 저주의 사례라든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를 돌로 쳐 죽이게 한 모세의 율법 등을 원용하였다. 그것들은 세속 법원과 교회 법원의 동물 재판 관행에 대한 법리적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전거들이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적 자연법론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적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구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위반하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동물 재판은 동물을 영원법과 자연법에 복종시키기 위한 엄숙한 절차였다. 그들은 동물 재판을 통해 자신들의 법과 정의의 개념을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까지 적용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등장한 인간 중심적 법 개념에 의한 자연의 영유(領有)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해서 동물 재판은 엘리트들의 보증하에 민중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현대인의 눈에 기괴하게 보이는 광경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A] 그 시대에 동물 재판이 가졌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가진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가 아이를 물어 죽이고 수탉이 달걀을 낳는 사태 앞에서 동물 재판은 판결에 이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태를 설명하는 서사를 구성하고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위 글의 동물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회 법원과 세속 법원이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고하였다.
- ② 엘리트의 법 관념과 민중 문화 모두에 기초하고 있었다.
- ③ 공권력의 성장이 재판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④ 기독교적 자연법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 ⑤ 성서적 권위를 통해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31. [A]에서 언급한 동물 재판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사실 관계와 죄책을 규명하여 응보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 ② 신의 징벌을 대행하는 의례를 통해 교회법의 신성함을 수호하였다.
- ③ 인격화된 동물에 대한 재판과 처형을 통해 인간의 속죄 의식을 고양하였다.
- ④ 범죄가 예외 없이 처벌됨을 증명하여 지배 질서의 권위를 과시하였다.
- ⑤ 인간의 규범을 통해 사태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얻고 질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게 하였다.

32. <보기>는 어떤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의 (가), (나)와 위 글의 ㉠, ㉡의 주장을 비교하여 서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원고의 주장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은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자연물의 고유한 가치를 자연의 권리로 인정하면, 환경 분쟁에서 유효적절하게 기능할 것이다. 현행법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듯이 자연물에 대해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해석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법하에서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법원의 판결

자연의 권리 및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성문 법률도 없고 그러한 관습법이 통용되고 있지도 않는 이상, 현행법하에서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위를 보는 (가)의 관점에 대해서 ㉠은 동의할 것이다.
- ②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와 ㉡의 입장은 일치한다.
- ③ (나)가 언급하는 법에 대해서 ㉠은 자신이 근거로 삼은 법이 상위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④ 모든 권리가 인정법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의 입장은 일치한다.
- ⑤ (가)와 (나)의 논의에 등장하는 자연의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 ㉠과 ㉡은 그것을 신의 섭리 밖의 문제라고 볼 것이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에는 지표를 세밀히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위성 영상 센서는 근래에는 지구 환경의 이해를 위한 과학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격탐사학은 이러한 센서 시스템을 통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격탐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체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빛의 속도로 진행한 후 지구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서 반사된 다음 다시 대기를 거쳐 위성 센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물체에 입사하는 에너지와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를 반사율이라 하는데, 원격탐사는 파장에 따른 반사율인 분광 반사율을 이용하여 물체의 성질을 알아낸다.

물체는 다양한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중 에너지가 최대인 파장을 ‘최대 에너지 파장’이라 한다. 표면의 절대 온도가 약 6,000K인 태양의 최대 에너지 파장은 $0.48\mu\text{m}$ 이다. 이에 맞추어 초기의 위성 영상은 가시광선($0.4\sim 0.7\mu\text{m}$)만을 이용했는데, 근래에는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 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원격탐사의 유용성이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우리 눈에는 천연 잔디와 인공 잔디가 똑같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근적외선($0.7\sim 1.2\mu\text{m}$)을 사용하면 두 물체는 확연히 구별된다. 녹색의 잎은 이 대역에서 약 50%의 강한 반사를 일으켜 위성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반면, 인공 잔디는 약 5%만을 반사하여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

중적외선($1.2\sim 3.0\mu\text{m}$)은 잎의 수분 함량에 대한 민감도가 가시광선보다 뛰어나 작물의 생육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된다. 또한 중적외선은 광물이나 암석의 고유한 분광 반사 특성을 이용한 자원 탐사에도 활용된다.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는 2.17, 2.21, 2.32, $2.58\mu\text{m}$ 의 중적외선을 흡수하는데, 어떤 물체의 분광 반사율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이는 고령토로 판단할 수 있다.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열적외선($3\sim 14\mu\text{m}$)은 지표면의 온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최대 에너지 파장은 물체의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므로, 산불(온도 약 800K, 최대 에너지 파장 $3.62\mu\text{m}$) 감시나 지표면의 토양, 물, 암석 등(온도 약 300K, 최대 에너지 파장 $9.67\mu\text{m}$)의 온도 감지에는 열적외선 센서가 유용하다.

여기서 전자기파는 지표에 도달하기 전과 반사된 후에 각각 대기 입자에 의해 산란·흡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 중에 먼지, 안개, 구름이 없는 청명한 날에도 산소나 질소 입자와 같이 입사파의 파장보다 월등히 작은 유효 지름을 가지는 대기 입자에 의하여 산란이 발생한다.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 하는데, 그 강도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파장이 $0.32\mu\text{m}$ 인 자외선은 파장이 $0.64\mu\text{m}$ 인 적색광에 비하여 약 16배 강한 산란을 보인다. 레일리 산란은 대기의 조성과 밀도를 알려 주는 중

